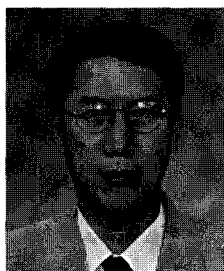


# 당뇨병과 백내장

당뇨병성 백내장은 젊은 사람 보다는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되며,  
 병력이 오래되고 혈당 조절이 안되는 환자는 동반되는  
 안과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최** 근 생활 수준의 향상과 먹거리 문화의 서구화로 우리 나라에도 당뇨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은 신체가 식사에 포함되어 있는 당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병은 소아기에 발병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 발병하기도 한다. 당뇨병은 진단 이후 각별한 혈당의 조절 및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신체의 각기 다른 부위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에서 나타나게 되는 합병증은 주로 신장, 신경계 및 눈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들은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해야만 한다.



권 오 웅

세브란스 병원 안과 전문의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안과적인 문제는 불안정한 혈당에 의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침침함이다. 간혹 초기 혈당을 조절할 때에 시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정체의 팽창에 기인하며 계속적인 혈당 조절이 이루어지면 별다른 치료 없이도 시력이 돌아온다. 혈당이 아주 높게 되면 체내에서 사용되

지 못한 과잉의 포도당이 솔비톨이라는 물질로 전환되는데, 이 솔비톨이 수정체에 축적되면 수정체의 팽창을 일으키고 이 팽창으로 일시적인 근시를 유발하게 되어, 독서 시에 돋보기가 필요했던 사람 중에는 돋보기 없이도 독서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눈이 좋아졌다는 착각을 일으

키기도 한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상이 제대로 맺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시력에 변동이 올 수도 있고 안경 도수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경우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면 원상태로 회복된다.

당뇨병 환자들이 모두 시력이 나빠질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정상인보다는 시력 장애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안과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일단 눈에 합병증이 발병한다면 심각한 시력 저하가 올 수 있으며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선진국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을 침범하는 당뇨병성 망막증은 실명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며 이는 주기적인 안과 검사와 치료로서 진행을 상당히 억제시킬 수 있다.

당뇨병은 여러 형태로 시력을 손상시키는데 그 중의 하나는 백내장의 발생이다. 사람의 눈에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있는데, 이는 빛을 모아서 상을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백내장은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말한다. 당뇨병성 백내장은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되며, 병력이 오

래되고 혈당 조절이 안되는 환자는 동반되는 안과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백내장 초기에 환자가 느끼는 변화는 아주 미미하여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시력이 감소할 수 있고 부엌에 보일 수 있다. 백내장의 초기에는 안경으로 어느 정도의 일상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어떤 환자들은 밝은 빛을 볼때 번쩍임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의 색이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다던가 어떤 배경 하에서는 어떤 물건을 잘 볼 수 없고 거리 감각이 감소되기도 한다. 운전할 때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의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에 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독서시 글자가 약간 비뚤어 보일 수 있다.

백내장은 특수한 장비 없이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침침해졌다던가 위에 상기한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안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찰을 받아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익상편이란 질병을 백내장이라 잘못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익상편은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하며 백내장과는 치료가 상이해 구분되어야 하는 질병이다. 예전에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백내장 수술의 시기를 아주 늦추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 백내장 수술에서는 백내장이 환자의 직업, 취미, 생활 양식을 방해하면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간주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수술 시기의 조정이 환자—의사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 전에 내과와 긴밀한 협의 진료하에서 수술 전후에 혈당 조절에 유의하면 당뇨병 환자에서도 백내장

를 같이 일으켰을 경우 백내장 수술이후 망막 레이저 치료라던가 녹내장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당뇨병 환자의 백내장은 이후 생길 수 있는 망막증이나 녹내장의 관찰 및 치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성 망막증 환자의 경우 백내장이 심해지면 레이저가 망막에 도달되지 않게 되므로 백내장 수술을 먼저 시행한 후 망막에 대한 치료

---

**백내장 초기에는 안경으로 어느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심해지면 시력이 감소하고 부엌게 보이게 된다.**

---

수술은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

백내장 수술은 뒷부분의 수정체 캡슐을 보호한 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이다.

보통 백내장 제거와 동시에 인공 수정체 삽입이 이루어지며 이 인공 수정체는 제거된 수정체를 대신하여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당뇨병 환자중 인공 수정체 삽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안과적 합병증이 같이 있을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인공 수정체 삽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뇨병이 안과적인 다른 문제

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당뇨병에서 오는 눈의 합병증은 다양하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과 함께 눈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이 절대 필요하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도 적용되며 당뇨병 환자라 할지라도 정기적인 검진 및 적절한 치료로 눈을 보전할 수 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예로부터 일컬어져 왔으나 의사의 입장에서는 신체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이라 해도 될 듯 하다. **DAK**